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Maternal Efficacy Influenced by the Internet

-Based on environment & actual condition of internet used by the mother-

서해대학 케어복지학과

강사 백종화*

이화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박성연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are, Sohae College

Lecturer: Baik, Jong-Wha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Park, Seong-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actual state of mother's internet use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internet use as a social support. The affect of mother's internet use on maternal efficacy is also examined. The Subjects were 250 mothers, who have their first child under 8 years old, in Seoul and Ilsan.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As predicted, mother's internet use was popular among young mothers. And, the main reason of internet use of mothers was to find some information on parenting and nurturing child. Moreover, mothers believed that they could get some social support from using internet in terms of informational, instrumental, and emotional servi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mother's perceived level of suppor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mother's age, level of mother's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the age of the first child. It was also found that mothers who received social support from internet showed higher maternal efficacy. Thus, we believe that internet use could be a new source of social support for the mothers of young children.

▲ 주요어(key words) :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양육 효능감 (maternal efficacy)

I. 서론

1. 문제제기

21세기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정보화 혁명'이다. 세계는 역사상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비견할만한 충격을 주고 있는 '정보화 혁명'으로 인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정보화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고 있다.

21세기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정보화 혁명'이다. 세계는 역사상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비견할만한 충격을 주고 있는 '정보화 혁명'으로 인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정보화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정보화를 설명해주는 한 예로서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ARG(America's Research Group)가 2000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3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96년 현재 전 세계 인터넷

* 주저자 : 백종화(E-mail : axe99@hanmail.net)

이용자 수가 4,00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만에 7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며, 2005년에는 세계에서 10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재휘·박유신·김지호, 2000에서 재인용).

또한 국내 인터넷 인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여서, '2000 국가정보화백서(정보통신부, 2000)'에 의하면 2000년 6월말 현재 7세 이상의 남녀 중 '월 평균 한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1,575만 명으로서 94년 말 138,000명에서 6년만에 100배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4).²⁾

정보화로 인한 국내·외의 급격한 인터넷 환경의 성장은 인류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즉 정보화로 인해 정부나 기업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통신, 교육, 오락, 재테크, 쇼핑, 은행 업무 등 일상 생활 요소 요소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터넷은 인류의 문화와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Bronfenbrenner, 1979)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생태학적 환경은 양육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심리적 변인과 더불어 최근 아동발달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이다. 즉 정보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는 양육자인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 또는 스트레스 요소로서 새로운 생태학적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적 지지를 양육행동과 관련지어 연구한 Polansky와 그 동료들(Polansky, Chalmers, Battenwieser, & Williams, 1981; Polansky, Gaudin, Ammons, Davis, 1985)에 의하면, 이웃이 지지적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도구적·정서적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방임적인 양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의 연구에서도(강희경·조복희 1999; 김기현 2000; 박성연·임희수 2000; 유가호 1999; 전춘애·박성연 1996) 남편이나 가족, 이웃, 친구들로부터 경험하는 양질의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한편 효능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도 보고되었다(신숙재, 1997).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여러 지

지원과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복잡한 구인으로서(박지원, 1985; Cochran & Brassard, 1979; Jenning, Stagg, & Conners, 1991),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과 지지 기능에 따라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분류하고 있다. 즉, 이웃·친구·친척·배우자·직장동료·건강 및 복지 전문가 등 지지원(support sources)에 따른 분류와 정서적·승인적·정보적·도구적 지지 등의 기능으로 분류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Crockenberg(1988)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개체에게 제공하는 정서적·도구적·정보적 도움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서적 지지란 자녀를 돌보는 어려움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공감이나 격려를 의미한다. 도구적 지지는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나 책임 특히 가사와 자녀양육과 같은 많은 일들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도움을 의미하며, 정보적 지지는 육아나 양육행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사회적 지지는 지지원의 객관적 지표에 관심을 두는 제공자의 관점에서보다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지각된 지지로 개념화되고 있다(Rohrle & Sommer, 1994). 즉 지지원의 수량보다는 개인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손쉽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지각이야말로 개인이 실제로 받게 될 지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ohen & Wills, 198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되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는 새로운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상될 것이라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얻게 되는 도움은 정보적 지지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뱅킹·증권·예매 예약·이메일 이용·경조금 서비스 등을 통해 도움을 얻게 되는 도구적 지지, 그리고 상담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얻게 되는 도움인 정서적 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 시간과 비용상의 도움,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 등 인터넷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적·도구적·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볼 때, 핵가족화의 확산으로 인해 오늘날 젊은 어머니들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경아(2001)의 사례연구에서도 핵가족에서 성장한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리에 대해 무지하며,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화와 같은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지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로 가정이 65.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가

2)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2000년부터 연 4회 8월, 12월, 3월, 6월 기준으로, 전국의 3,452개 가구 내에 상주하고 있는 만 7세 이상 남녀 10,38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률, 이용자 수, 이용 형태, 정보화 및 인터넷 환경, 인터넷 활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의 72.1%가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PC 보유 가정 중 72.5%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1) 인터넷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가정에서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양육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요인으로 부모의 인지적 특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육 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육 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Johnston & Mash, 1989),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Luster & Kain, 1987; 안지영, 2000에서 재인용). 신숙재(1997)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양육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 속도가 빠르고 어머니의 양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유아기와 아동 초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낄 것으로 판단하여, 첫 자녀연령이 8세 이하인 젊은 어머니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게 되는 도움을 사회적 지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젊은 어머니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인바,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터넷을 통해 얻게되는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인터넷 환경 및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 또한 인터넷 이용 행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정도는 어떠한가? 또한 이러한 지각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첫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250명(남아: 143명, 여아: 107명)의 어머니로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자녀의 첫 자녀 연령은 0~3세가 38.2%, 4~6

세가 29.3%, 7~8세가 32.5%로 영아기·유아기·아동초기의 발달 시기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23.6%, 31~35세가 54.4%, 36~40세가 20.4%로 주로 31~35세에 분포되어 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6.8%, 전문대학교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17.2%, 대학교 졸업이 50.4%, 대학원 이상이 5.6%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 수준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직업이 없는 어머니는 전체 대상자의 69.6%이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30.4%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 전문·자유직 등이었다. 자녀의 수는 1명이 45.6%, 2명이 52.4%, 3명이 2.0%의 분포를 보였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100~200만원미만이 30.4%, 200~300만원 미만이 38.4%, 300~400만원 미만이 20.4%로 나타나 수입 분포에 근거해 볼 때 연구 대상의 약 70%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인터넷 환경 및 인터넷 이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내용, 독립변인인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내용 및 종속변인인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인터넷 환경 및 인터넷 이용 행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 환경 및 인터넷 이용 행태에 관한 문항은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 행태에 관한 설문 조사(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와 '어린이 디지털 매체 이용 형태 조사(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에서 사용한 질문 중 어머니의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 이용 행태를 묻는 데 적합한 질문을 연구자가 선별·추가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 수는 모두 15문항으로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2문항은 컴퓨터 보유 여부와 보유 컴퓨터 종류, 인터넷 접속 방법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인터넷 이용 행태와 관련된 문항은 13문항으로 인터넷 사용 경험 유·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동기, 자녀양육 및 교육 정보를 얻는 방법, 인터넷 이용 빈도,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주 이용 목적, 주 접속 사이트, 어머니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 이 메일·홈페이지 보유 여부, 인터넷 쇼핑·주식 거래·뱅킹 사용 경험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방식은 15문항 중 인터넷으로 주로 하는 일·주 접속 사이트·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 등을 묻는 3개의 문항들은 다중응답을, 나머지 문항들은 해당하는 문항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였다.

2)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이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도움을 의미한다. 정보

적 지지는 인터넷을 통해 육아 정보나 양육 행동에 관한 정보와 조언 및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적 지지는 어머니가 해야하는 일이나 책임 특히 가사와 자녀양육과 같은 많은 일의 양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감소시켜 시간 및 비용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는 상담이나 채팅·게시판 등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어머니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어머니가 이해된다는 공감 및 격려와 같은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 하에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 측정을 위해서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로 인터넷 이용이 어머니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 9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터넷 이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9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에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알게 해 주었다' '자녀연령에 맞는 육아·교육 정보가 풍부해졌다' '아이·남편과 공통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아졌다'의 3개 문항이 포함되어 '정보적 지지'로 명명되었다. 요인 2에는 '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살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뱅킹, 증권업무를 볼 수 있다' '이 메일로 손쉽게 편지를 쓸 수 있다'의 3개 문항이 포함되어 '도구적 지지'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3에는 '게시판·채팅으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오락·게임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양육·교육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의 3개 문항이 포함되어 '정서적 지지'로 명명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 9개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alpha = .79$ 이었고, 정보적·도구적·정서적 신뢰도는 각각 $\alpha = .64$, $\alpha = .66$, $\alpha = .63$ 이었다.

3) 양육 효능감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숙재(1997)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항으로 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선정하여 번안·수정한 후, 사용한 2개 요인척도중 요인 I 인 양육 효능감 측정 도구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주어졌고, 부정문으로 된 2문항은 역으로 채점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 효능감 9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alpha = .83$ 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 조사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령층의 균형적인 표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 구분한 첫 자녀 연령 0세에서 3세, 4세에서 6세, 7세에서 8세의 자녀 연령층에 따라 서울과 일산 지역에서 해당 연령층의 대상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하였다.

총 3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질문지 중 자녀연령이 연구에 부적절하거나 미완성된 설문지 41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50부가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복수 응답을 하는 문항은 선택형 다중응답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 문항의 신뢰도는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에 의해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고, 요인별 빈도분석에서는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간 또는 하위요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 교차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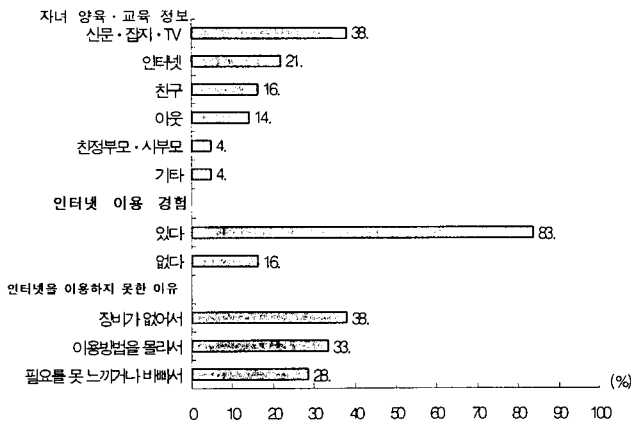
1. 어머니의 인터넷 환경 및 이용 행태

1) 인터넷 환경 및 이용 행태

연구문제 1을 위하여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 및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종류 그리고 인터넷 접속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 환경으로서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은 90.7%로 대부분의 가정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인터넷 접속방법은 ADSL이 36.3%, 전용선(LAN)이 21.5%, CATV가 2.5%, HDSL이 0.8%로 나타나 컴퓨터가 있는 가정의 61.1%가 초고속 접속방법으로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었다.

한편 어머니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에 관련하여 볼 때,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 및 교육 정보를 주로 얻는 방법은 신문·잡지·TV가 가장 높은 38.1%였고, 인터넷이 21.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그밖에 친구·이웃·친정부부와 시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어머니 대부분(83.6%)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 경험이 없는 어머니 중 93.6%가 향후 인터넷 이용 의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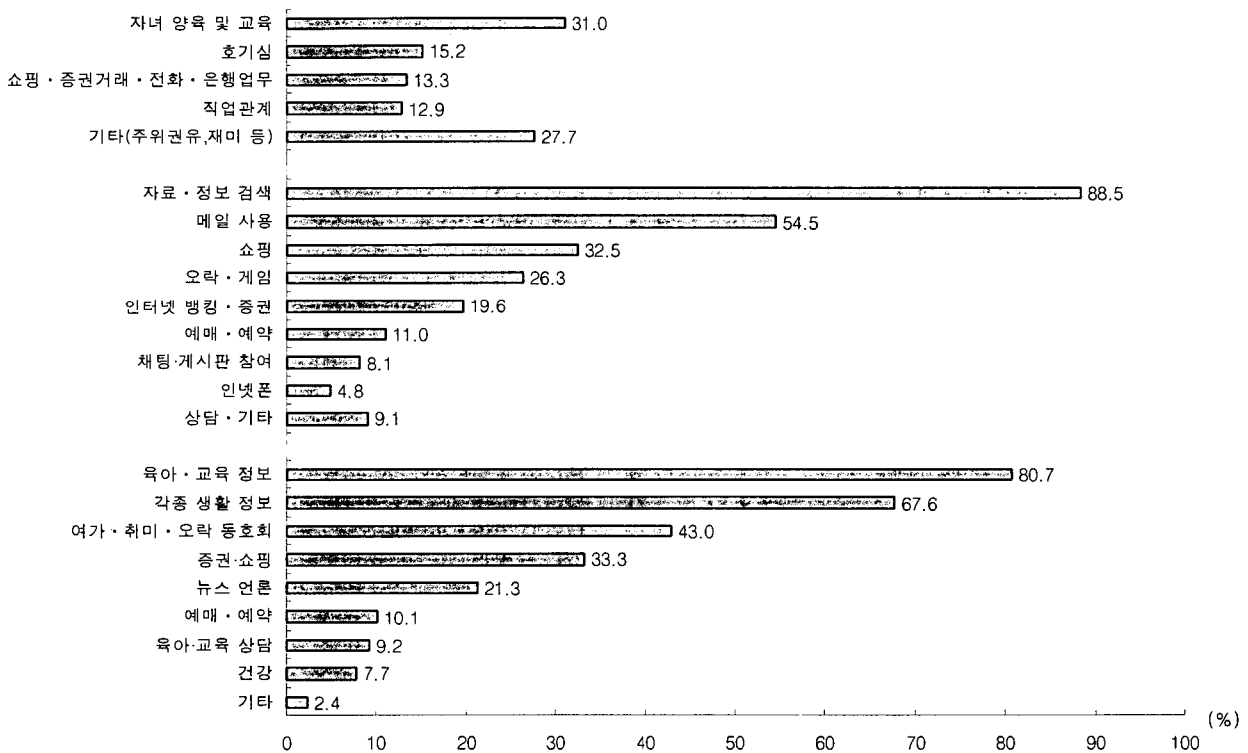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어머니 중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컴퓨터 등 장비가 없어서가 38.1%, 이용 방법을 몰라서가 33.3%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가 인터넷 환경 및 인터넷 이용 능력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어머니의 자녀 양육·교육 정보원 및 인터넷 이용 경험유무

가지를 선택하는 복수 응답을 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자료 및 정보를 검색하다가 88.5%, 메일사용이 54.5%, 다음은 쇼핑이 32.5%이었다. 그밖에 오락·게임, 인터넷 뱅킹·증권·예매·예약·채팅 및 게시판 이용·인넷폰·상담 등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인터넷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상담은 아직까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머니들을 위한 인터넷 상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어머니가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복수 응답, 보기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게 함)는 교육 및 육아 정보 사이트로 어머니의 80.7%가 교육 및 육아 정보 사이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각종 생활 정보 사이트가 67.6%, 여가·취미·오락·동호회 사이트가 43.0%, 증권 및 쇼핑 사이트가 33.3%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적·도구적·정서적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주: 복수응답으로 인하여 백분율의 합계가 다를 수 있음.

<그림 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동기·인터넷으로 주로 하는 일·주 접속사이트

한편,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동기, 인터넷으로 주로 하는 일, 주 접속 사이트의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동기를 보면, 자녀 양육과 교육 때문이 가장 높은 31.0%이었고, 호기심이 15.2%, 쇼핑·증권거래·전화·은행업무로 13.3%, 직업과 관련하여는 12.9%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주로 하는 일을 10개의 보기 중에서 3

다음은 어머니의 컴퓨터 사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가 컴퓨터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어머니들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넷으로 자료검색하고 이 메일을 이용하는 것(89.4%)이었다. 그 다음은 오락·게임, 문서작성, 인터넷방송·영화보기, PC통신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의 다양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N=250)

변인	구 분	백분율(%)								전체
		인터넷을 처음 이용하게 된 동기								
		주위의 권유	호기심	자녀 양육·교육	직업 관련	재미로	남에게 뒤지지 않게	쇼핑 증권/전화	기타	
학력	고졸이하	1.4	1.0	10.5	2.4	.5	0	4.3	1.0	21.0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1.4	2.3	8.6	.5	1.4	.5	1.4	1.9	18.0
	대졸이상	4.8	11.9	11.9	10.0	4.8	4.3	7.6	5.7	61.0
	합 계	7.6	15.2	31.0	12.9	6.7	4.8	13.3	8.6	100.0
$\chi^2=32.4^{**}$ df=14										
직업유무	없 다	6.2	10.0	24.3	4.8	4.8	3.8	10.0	5.7	69.5
	있 다	1.4	5.2	6.7	8.1	1.9	1.0	3.3	2.9	30.5
	합 계	7.6	15.2	31.0	12.9	6.7	4.7	13.3	8.6	100.0
$\chi^2=18.1^*$ df=7										
자녀수	1명	4.3	7.1	11.4	8.6	4.3	1.4	4.3	5.7	47.1
	2명 이상	3.3	8.1	19.6	4.3	2.4	3.3	9.0	2.9	52.9
	합 계	7.6	15.2	31.0	12.9	6.7	4.8	13.3	8.6	100.0
$\chi^2=15.5^*$ df=7										
첫 자녀 연령	0 - 3세	3.4	4.8	8.3	7.8	4.4	1.5	3.9	4.8	38.9
	4 - 6세	2.9	6.3	8.3	2.4	1.9	1.9	3.4	2.4	29.5
	7 - 8세	1.5	3.9	15.0	2.4	.5	1.5	5.3	1.5	31.6
	합 계	7.8	15.0	31.6	12.6	6.8	4.9	12.6	8.7	100.0
$\chi^2=27.0^*$ df=14										

* p < .05 ** p < .01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경험 및 이용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

(N=250)

변인	구 분	백분율(%)		전체	
		인터넷 이용경험			
		있다	없다		
학력	고졸이하	16.8	10.0	26.8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15.2	2.0	17.2	
	대졸이상	51.6	4.4	56.0	
	합 계	83.6	16.4	100.0	
$\chi^2=29.546^{***}$ df=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1.8	10.5	32.3	
	200-300만원 미만	35.1	3.6	38.7	
	300만원 이상	27.0	2.0	29.0	
	합 계	83.9	16.1	100.0	
$\chi^2=23.577^{***}$ df=2					
		인터넷 이용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1-4회	일주일에 1회 미만	
연령	30이하	8.2	11.5	6.3	26.0
	31-35세	19.7	19.2	13.9	52.8
	36-40세	4.8	5.8	10.6	21.2
	합 계	32.7	36.5	30.8	100.0
$\chi^2=10.794^*$ df=4					

* p < .05 *** p < .001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간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를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학력·직업 유무·자녀 수·첫 자녀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인터넷 이용 행태와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 집단과 직업이 없는 집단의 인터넷 이용 동기는 '자녀 양육 및 교육'이 주를 이룬데 비해 대졸 이상의 집단과 직업이 있는 집단은 '자녀양육 및 교육·직업 관련·호기심'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자녀 양육 및 교육·직업 관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응답이 집중되었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교육 및 직업관련'에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자녀 연령이 7~8세인 집단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응답률이 집중되어 나타났다(<표 1>).

또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행태 중 인터넷 이용 경험 유무·이용 빈도와와 관계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이용 경험 유무에서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 및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률이 높았고, 인터넷 이용 빈도는 어머니의 연령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 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2>).

2.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인터넷 환경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아봄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얻게되는 도움이 사회적 지지로서의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기능별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가 인터넷 이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고 지각한 정도는 전체 평균 3.10으로 나타나 비교적 인터넷 이용이 사회적 지지로서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보적·도구적·정서적지지 각각의 평균은 3.44, 3.33, 2.53으로 정보 및 도구적 지지에 비해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

또한 3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4>), 세 가지 사회적 지지기능 모두에서 자녀의 연령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0~3세와 4~6세 자녀를 둔 두 집단이 7~8세 자녀를 둔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이 정보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관계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 양육 경험 기간이 짧은 어머니에게 인터넷 정보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롭게도 어머니 연령과 첫 자녀 연령

이 정서적 지지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연령에 35세 이하인 집단이 36세 이상인 집단보다 정서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했고, 첫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집단이 7~8세인 집단보다 정서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혹은 상담 등이 35세 이하의 어머니들에게는 익숙한 문화인 반면, 36세 이상의 어머니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가구소득과 첫 자녀 연령은 도구적 지지의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첫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도구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아,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첫 자녀 연령이 3세 이하인 집단이 3세 이상인 집단보다 인터넷을 통한 가사·육아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3>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정도

기 능 / 문 항	M	SD
정보적 지지		
다양한 뉴스를 알게 해 주었다	3.60	.90
자녀연령에 맞는 육아 및 교육자료가 풍부해졌다	3.79	1.00
아이나 남편과 공통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졌다	2.93	.98
합 계	3.44	.74
도구적 지지		
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3.04	1.25
인터넷 뱅킹과 증권 업무를 볼 수 있다	3.04	1.47
이 메일로 손쉽게 편지를 쓸 수 있다	3.91	1.27
합 계	3.33	1.03
정서적 지지		
게시판, 채팅으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2.26	1.22
오락, 게임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2.46	1.21
양육, 교육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2.88	1.15
합 계	2.53	.90
전 체	3.10	.71
* 1=전혀 그렇지 않다 5=정말 그렇다		

3.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간의 관계

연구문제 3인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 3요인 모두에서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정보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은 $r = .26(p < .01)$ 로 3요인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도구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은 $r = .202(p < .01)$ 였고, 정서적 활용과 양육 효능감은 3요인 중 가장 낮은 $r = .180(p < .01)$ 을 보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 전체와 양육 효능감은 $r = .263(p < .01)$ 을 나타내었다(<표 5>).

<표 4> 인구학적변인에 따른 각 사회적지지별 지각 수준의 차이

인구학적변인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전체			
	N	M (SD)	F	Duncan	N	M(SD)	F	Duncan	N	M(SD)	F	Duncan	N	M(SD)	F	Duncan
어머니연령																
30세이하	54	3.48 (.62)			54	3.49 (1.00)			54	2.77 (.85)		A	54	3.25 (.61)		A
31-35세	110	3.48 (.74)	2.40		110	3.26 (1.05)	1.27		110	2.56 (.92)	5.841**	A	110	3.09 (.74)	3.969*	AB
36-40세	44	3.19 (.83)			44	3.19 (.94)			44	2.16 (.90)		B	44	2.85 (.67)		B
합계	208	3.41 (.74)			208	3.30 (1.02)			208	2.53 (.90)			208	3.08 (.70)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42	3.17 (.86)			42	3.07 (1.16)			42	2.36 (.95)			42	2.87 (.83)		B
전문대졸 대학중퇴	38	3.42 (.75)	2.693		38	3.10 (1.06)	2.710		38	2.46 (.90)	1.277		38	2.99 (.67)	3.193*	AB
대졸이상	129	3.47 (.68)			129	3.42 (.96)			129	2.60 (.88)			129	3.17 (.66)		A
합계	209	3.40 (.74)			209	3.29 (1.03)			209	2.53 (.91)			209	3.07 (.71)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54	3.44 (.67)			54	2.92 (1.04)		B	54	2.53 (.86)			54	2.96 (.70)		
200-300만원미만	87	3.37 (.80)	.238		87	3.30 (1.06)	6.631**	A	87	2.49 (.91)	.289		87	3.05 (.74)	1.946	
300만원이상	67	3.44 (.70)			67	3.59 (.89)		A	67	2.60 (.92)			67	3.08 (.70)		
합계	208	3.41 (.73)			208	3.29 (1.03)			208	2.53 (.90)			208	3.08 (.70)		
첫자녀연령																
0-3세	81	3.54 (.59)		A	81	3.51 (.97)		A	81	2.69 (.85)		A	81	3.25 (.57)		A
4-6세	61	3.43 (.78)	4.389*	A	61	3.24 (1.06)	3.737*	AB	61	2.58 (.95)	4.033*	B	61	3.08 (.76)	6.272**	A
7-8세	63	3.18 (.84)		B	63	3.05 (1.05)		B	63	2.27 (.88)		B	63	2.83 (.77)		B
합계	205	3.40 (.74)			205	3.29 (1.04)			205	2.53 (.91)			205	3.07 (.71)		
자녀수																
1명	90	3.47 (.66)			99	3.44 (.99)			99	2.65 (.85)			99	3.19 (.62)		
2명이상	110	3.34 (.80)	2.025		110	3.16 (1.05)	.092		110	2.41 (.93)	1.190		110	2.97 (.76)	4.044*	
어머니직업유무																
없다	146	3.42 (.72)			146	3.23 (1.00)			146	2.48 (.87)			146	3.04 (.69)		
있다	63	3.36 (.79)	.341		63	3.43 (1.08)	.220		63	2.65 (.96)	.497		63	3.15 (.75)	.380	

한편, 본 연구문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양육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 효능감은 어머니의 연령·첫 자녀 연령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어머니의 학력($r = .182, p < .01$)·직업 유무($r = .131, p < .05$)·가구

소득($r = .129, p < .05$)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녀수($r = -.145, p < .05$)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가구 소득이 높을수록·직업이 있는 경우 양육 효능감이 높았고, 자녀 수는 적을 때 양육 효능감이 높았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어머니의 학력·어머니의 직업유무·가구소득·자녀 수와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기능인 정보적·도구적·정서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효능감을 종속 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표 6>와 같이 양육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적 지지 변인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유무도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양육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약 11.7%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의 주 접속 사이트 1순위로 나타난 육아·교육 정보사이트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양육 효능감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과 두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간의 상관관계 (N=250)

	1	2	3	4	5
1. 인터넷정보지지	-				
2. 인터넷도구지지	.392**	-			
3. 인터넷정서지지	.512**	.446**	-		
4. 인터넷지지 총점	.754**	.809**	.817**	-	
5. 효능감	.257**	.202**	.180**	.263**	-

** p < .01

<표 6> 양육효능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의 다중회귀분석 (N=250)

독립변인	B	β
정보적 지지	.158	.239**
도구적 지지	.032	.070
정서적 지지	.006	.013
어머니의 학력	-.009	-.015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173	.164*
가구소득	.049	.078
자녀수	-.038	-.039
R2	.117	
F	2.923**	

* p< .05 ** p<.01 어머니의 직업이 없다=0, 있다=1

이러한 결과는 주 접속 사이트만으로는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인터넷 이용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느냐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도움을 얻었는가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을 새로운 생태학적 양육 환경으로 정의하여, 어머니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의 한 유형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머니들에게 인터넷 이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지지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3.6%의 어머니가 인터넷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16.4%의 어머니 중 93.6%가 향후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를 밝힘으로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이용 동기와 이용 목적이 주로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고,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육아 및 교육 정보 사이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이 자녀양육과 관계 있음을 시사해 주며, 앞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양육 및 교육 정보 제공·부모교육·상담 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어머니들이 양육 정보 및 교육 정보를 얻는 통로로서 대중 매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순위로 인터넷이 양육 및 교육 정보원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부모·친정부모가 4.9%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교육 정보에 대한 세대간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조의 소규모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새로운 생태학적 양육 환경으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행태 특징 중 하나는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하는 일에 대한 것으로, 자료 및 정보 검색·이메일 사용·쇼핑·오락·게임·인터넷 뱅킹·인터넷 증권·예매 및 예약·채팅 및 게시판 이용·인벳폰·상담 등 다양한 생활 내용에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에게 인터넷이 새로운 생태학적 환경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즉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생활은 Bronfenbrenner(1979)가 말하고 있는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에 속하는 사회적 조직망·제도·하위문화·문화로서 어머니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통한 생활 양식의 변화는 어머니의 행동양식과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를 비교해 볼 때 어머니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적, 도구적 도움을 받는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지각 수준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

터넷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사이버 거래가 갖는 시간적·공간적 자유(김성일, 1997), 이용의 용이성·효율성 등의 특징은 정보적·도구적 지지를 가능케 하였으나, 문자에만 의존해야 하는 제한적인 감정 표현과 상대방과의 라포 형성의 어려움·개인 정보나 비밀 누출의 가능성 등은 인터넷을 통한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인터넷 상담 비율(4.8%)이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도 설명이 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적 지지 문항의 타당성 문제로 그 내용을 타당하게 측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탈 억제성·평등성(김성일, 1997), 개방적·민주적 의사소통(박광배, 1997)·유희성 있는 대인관계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적 지지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하므로, 앞으로 정서적 지지환경으로서의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지지 유형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자녀 연령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6세 이하의 어린 첫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정보적·도구적·정서적 지지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6세 이상이 되면 유치원·학교 등을 통해 어머니에게 새로운 정보원과 대인관계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35세 이하의 집단이 36세 이상의 집단보다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자녀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될 연령층을 포함하여 자녀의 연령이 어린 어머니들이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끝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육의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양육 효능감과 관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적·도구적·정서적 지지기능 모두에서 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들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한편 현 시점에서는 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적 지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서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정보화시대의 개인은 물질적 안정과 생활 수준의 향상, 시간적 여유를 누리게 됨에 따라 인간의 상위 욕구인 소속감이나 관계적 욕구, 자아존중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들도 정보적·도구적 지지에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게 되면 자신 및 양육과 관련하여 정서적인 지지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의 게시판·채팅·커뮤니티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인터넷 환경이 새로운 사회적

지지로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지각은 어머니의 연령·어머니의 학력·자녀 연령·자녀 수 등의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 지각점수와 양육 효능감간의 유의한 긍정적 관계이외에 연구 결과로 나타난 어머니의 인터넷 환경 및 이용 특징은 인터넷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지해 준다. 즉, 가정의 높은 컴퓨터 보유율과 초고속 인터넷 접속 비율,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의 주된 동기가 자녀양육 및 교육 때문이며, 이용 목적이 자료 및 정보 검색인 경우가 많고,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육아 및 교육 정보 사이트라는 점은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탐색적 수준이므로 지속적으로 척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 본 연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간의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확인해 주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어머니들이 인터넷을 새로운 사회적 지지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데 있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동의 발달 특징상 사회적 지지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어머니의 양육 환경이 지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환경이 없거나 취약한 어머니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지지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자녀 양육자이며 주요한 인터넷 이용자로서의 어머니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은 아동학의 한 분야가 될 것이며, 아동학 전공자들을 통한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은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환경 수준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접수일 : 2002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4월 10일

【참 고 문 헌】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역할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

- 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2000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3-142.
- 김성일(1997).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의사소통, 인지 및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제15호*.
- 김재휘 · 박유진 · 김기호(2000). 사이트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가 사이트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1(1), 83-102.
- 박광배(1997). 사이버공간의 외설/음란물에 대한 법적통제.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제15호*.
- 박성연 · 임희수(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아(2001). 가족의 변화와 모성의 재구성. 200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50.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가효(1999). 첫부모됨과 영아기 육아에서의 문화간, 세대간 연속성과 비연속성: 한국, 중국, 미국 가족을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 아동학회 2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42.
- 전춘애 · 박성연(1996).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정보통신부(2000). 2000 국가정보화 백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 어린이 디지털매체 이용형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형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Cochran, M. M. & Brassard, J. 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9-616.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rokenberg, S.(1988).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H. Fitzgerald, B. Lester, & M. Yogman(Eds.).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Vol.4*, NewYork/London: Plenum. 67-92
- House, J.(1981). *The Nature of social Support, in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 Wesley.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Jennigs, K. D., Stagg, V., & Connors, R. E.(1991). Social networks and mo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966-978.
- Luster, T., & Kain, E. L.(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Polansky, N., Gaudin, J., Ammons, P., & Davis, K.(1985). The psychological ecology of the neglectful mother. *Child Abuse & Neglect* 9, 265-275.
- Rohrle, B. & Sommer, G.(1994).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to their relationship. In Nestmann, F. & Hurrelmann, K.(Ed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Berlin: Walter de Gruyter.